

월요광장



임동혁
미네르바 코칭앤컨설팅 대표
전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세기 동안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인간의 기대 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사람들은 경제적 필요나 개인적 성취를 이유로 더 오랫동안 일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 직장 안에서도 Z세대(1995~2009년생)부터 침묵세대(1928~1945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는 멀티제너레이션(Multi-Generation) 시대가 도래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일터에 성장동력으로서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왔다.

멀티제너레이션의 긍정적 측면은 많다. 협업에 참여하는 각 세대가 고유한 경험, 가치관, 문제해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더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기성세대는 제도적 지식, 역사적 맥락, 삶의 경험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는 참신한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지식, 새로운 문화적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멘토링을 통해 집단 지성을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가 서로 접촉하면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 줄어들고 상호존중이 형성되어 더 공감하고, 더 응집력이 높은 강력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낼 수도

멀티제너레이션 시대의 빛과 그림자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커뮤니케이션 채널(1:1 접촉, 대면 회의, e메일, 영상회의 등)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선호도 차이는 의사소통 장애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직업윤리, 권위와 위계질서, 사회적·정치적 현상에 대한 세대 간의 견해 차이로 긴장감, 변화에 대한 저항, 직장 내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격차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일부 고령층은 뒤처지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아날로그 기술을 유지하면 젊은 세대는 피해의식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기술격차는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세대를 서로 고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멀티제너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조직과 개인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조직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함께 사용하는 다중채널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세대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 경력이 많은 직원이 비즈니스 전략을 가르치고 젊은 직원이 디지털 기술을 전수하는 상호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여 세대 간 고정관념을 없애고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시니어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한 기술교육을 제공해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관리자들에게 세대별 사고와 행동 특성을 이해시키고,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모든 연령대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이나 제도 수립 과정에 모든 세대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생애 단계에 따른 다양한 정서적 욕

구, 스트레스 요인,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다른 세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공감과 감성지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했어” 등과 같은 경직성을 버리고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길러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명확한 질문을 하며, 공통의 목표를 찾는 등 세대 차이로 인해 오해나 마찰이 발생할 때 건설적으로 긴장을 관리해야 한다. 연공서열이 아닌 기술과 가치에 따라 나이와 관계없이 멘토, 멘티 또는 동료의 역할을 포용해 협업과 팀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고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 및 디지털 리더러시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나 가정을 없애고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여 모두에게 가까이 배워려는 겸손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멀티제너레이션은 도전이자 기회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기도 하다. 세대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포용력이 있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회복력이 높은 이유다.

멀티제너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연령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대별 경험을 이해하는 공감과 생애 단계별 차이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면 멀티제너레이션은 힘과 연속성, 혁신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수필의 향기



이중섭
소설가

페이스북에는 매일 과거에 썼던 글이 뜬다. 이번에는 대학 친구 J의 첫 기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페이스북의 글을 읽고 다음에 내 블로그에 들어가 그를 검색해 본다. 몇 가지 중에 이 글이 눈에 띈다.

꿈속에서 J가 나타났다. 무슨 일일까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로또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니 무언가 심각한 대변동이 일어날 것 같았다. 혹 그가 물질적인 풍요를 주려나 싶어 얼른 만 원짜리 로또를 샀다. 그리고 며칠 잊어버렸다. 부랴부랴 로또 번호를 맞춰보았다. 열 줄의 번호에서 여섯 개의 숫자가 각각 따로 맞았다. 무언가 허전하고 이젠 아닌 거 같아 아침 밥상에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다.

“그럼, 얼마야?” 나보다 더 자분을 밝히지만 현실에는 둔한 아내였다. 천 원이면 한 줄에 여섯 자리 숫자와 보너스 한 숫자 중 세 자리 숫자가 맞아야 오천 원이라고 말하자 내내는 돈이 아깝다며 주절거렸다.

“하긴 J가 떠난 것이 이맘때쯤이었지.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야?” 약 십 년 동안 능소화가 피었다 지고 아득한 눈 속에 동백이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벌써라는 말

능소화 필 즈음에

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

지방의 조그만 도시에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의 아내와 내 아내가 자주 전화 통화를 했다. 가끔 J가 숨기고 싶은 일들이 거름망을 통하지 않고 나한테까지 들려오곤 했다.

어느 일요일 이른 아침에 J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젯밤에 마신 술로 죽을 것 같다며 내가 왔으면 싶다고 했다. 병원에 가려는 것이었다. 조금 뜬금없고 어이없었다. 얼마나 물러터졌으면 술 때문에 병원에 간다? 그때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술을 마시고 속이 쓰리면 토하고, 다시 누웠다가 또 토하고, 그래도 힘들면 술 껌는 음료를 사다 마시고, 또 몇 번 토하다가 오후 되어 조금 살 것 같으면 이제 술을 허기를 느끼면서 뭐 육개장이나 그런 술국이 생각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의 아내에게 한마디로 거절하며 심한 말도 함께 전해주라고 했다. 그의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말할 거란 말까지 합니다!”

그랬다. 이런 행동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속에서 쓰라리게 시작됐다. 녀석은 나를 관찮은 놈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그를 별로 무덤덤하게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 우리 부부를 잉꼬부부라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부부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듣기 좋게 말하곤 했다. J의 배려에 대한 나의 한심함이 이제 하나하나가 다 미안했다.

J는 나와 성격이 아주 달랐다. 그는 뭐랄까 무엇이든

숨기지 않는 성격이었다. 나는 솔직히 말해 뒤에서 호박씨를 까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자는 타입이었다. 그래도 현실 생활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세게가 무사히 돌아간다는 그런 주의였다. 나와 다르게 J는 사람들 앞에서나 뒤에서나 일관되게 과장해서 말했다. 나는 그게 싫었다. 대놓고 녀석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자주 얘기했다. 그런데도 녀석은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았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이렇게 건방지고 무례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내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짚고도 현실에서는 그가 언제 세상을 뒀는지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채 그를 잊고 살았다. 꿈속에서 그가 나타나면 로또를 생각하는 경박한 자본주의의 액을 먹고 사는 벌레에 불과했다. 그건 그렇더라도 로또에서 최소한 5000원짜리 하나도 안 맞았다는 사실에는 실망했다. 다시 꿈에 그가 나타나면 그것부터 따져볼 생각이다.

그가 웃고 있는 영락 추모 공원은 5·18 망월 묘지 뒤편에 있는데 들을 때마다 공원 입구가 차로 엄청나게 막혔다. 다음 날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들르자며 운전대를 돌리곤 했다.

페이스북에서는 과거의 일들을 계속 소환하고 현실 속 하루하루는 빠르고 번덕스럽다. 아침저녁으로 하천 길을 걷는다. 장마 전선이 슬슬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만 같다. 산책길에는 주홍색 능소화가 하늘하늘 웃고 있다.

기 고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장

“학교에선 쉴 틈이 없고, 집에 가면 공부하느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의 말이다. 이 짧은 문장은 오늘날 아동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구조적 제약과 이로 인한 건강 침해의 현실을 명확히 드러낸다. 건강은 단지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기본적인 불가침한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세~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좌식 시간은 11시간에 달한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부족’과 ‘정서적 고립’으로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4시간, 고등학생은 6.1시간으로 WHO 권고치(9시간 이

상)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은 75.8%나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닌 아동의 건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사회적 신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NGO로서 아동의 건강 문제를 복지나 의료 서비스의 개인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인구 대비 범죄 발생률이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며 다문화 가정 및 자립준비청년 등 신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굿네이버스 광주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범죄 피해 예방과 회복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 고립과 신체적 건강 저하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다문화 아동, 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2025년 아동 건강권 증진 캠페인 ‘지금, 움직여 봐!’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단순 건강 정보 제공을 넘어 아동이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건강한 삶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신체건강 증진, 정서회복 지원, 정보기반 환경구축, 권리옹호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 사회적 약자지원 보편 예방 구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대상에서 나아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권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

건강은 단지 병원에서 치료료를 권리가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휴식, 건강한 식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일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삶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가정의 역할을 넘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정책결정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아동이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아동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할 때이다. 아동의 건강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최소 기준이자, 함께 만들 어갈 사회의 미래 가치이기 때문이다.

社 說

학령인구 감소에 명맥 끊기는 엘리트 체육

광주·전남 일선 학교의 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 체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한때는 ‘1학교 1종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마다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됐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하나씩 해체되기 시작해 지금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

2020년 창단 32년만에 팀이 해체된 여수중고등학교 복싱부는 무너지고 있는 엘리트 체육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학교는 1988년 전남에선 처음으로 복싱부를 창단한 후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소년체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할 정도로 복싱명문이었다. 2001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이창환이 미들급 1위와 최우수선수를 차지했고 2004년 전국소년체전에선 김광종이 미들급 1위와 금메달을 딸 정도였지만 선수 부족으로 결국 팀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운동부가 해체된 곳은 26개 학교에 서 11개 종목에 걸쳐 27개 팀이었다. 이 가운데 13곳은 엘리트 체육을 포기한 대신 생활체육을 접목한 클럽으로 전환해 명맥을 잇고 있다. 전남지역 학교만 보더

라도 최근 6년 동안 운동부 육성학교의 19.3%, 육성팀은 11.7%, 선수는 21.3%나 급감했다는 자료가 있다. 배구·태권도·육상·씨름 등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팀이 해체되는 것도 특징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전적으로 지도자들의 열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도자들의 낮은 급여 등 복지도 팀 해체의 원인이다.

일선학교의 팀 해체가 심각한 이유는 초·중·고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선수 연계 육성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선수 육성의 요람으로 엘리트 체육의 최전선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체육의 붕괴를 막으려면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등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한가지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는 일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생활체육을 접목한 클럽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해 보아야 한다. 선진국처럼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창업 허브 ‘광주 스테이지’ 청년 유출 막을까

호남 최대의 창업 허브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이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광주역 수화물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스테이지는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사업의 첫 결실이다. 광주시는 광주역 유류부지에 2027년까지 창업 생태계 핵심 거점인 창업밸리를 조성하는데 스테이지가 광주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350억원이 투입된 스테이지는 ‘창업 기업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테이지에는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 투자전문기관, 창업 지원기관이 함께 입주해 협업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통합형 창업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개관식에선 광주시·신용보증기금·광주은행이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자금 1000억원 업무협

약(MOU) 체결식 등도 열어 광주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광주시는 현재 6000억원 규모의 창업 펀드를 1조원대까지 늘리고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해 양성되고 실증을 거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는 최근 인구 140만명이 무너져 충격을 주고 있고 그 중심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이 있다. 청년들의 유출을 막으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 스테이지가 창업 허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청년 유출을 막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無 等 鼓

일반적으로 수필은 오랫동안 문학의 비주류로 인식돼왔다. 시나 소설, 희곡에 비해 허구적 특성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진솔함이 수필의 매력이자 독자와의 소통을 잇는 요인이기도 하다.

학창시절 배웠던 수필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피천득의 ‘인연’이다. 주인공이 어린 시절 만났던 일본인 소녀와의 만남과 추억을 담담하면서도 회고조로 풀어낸 수필이다. 짧은 만남 이후 우연한 재회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엇갈린 다. 작품이 감동적이었던 것은 독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려온 ‘인연’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도 기억에 남아 있는 작품이다. ‘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 ‘잘 익은 개암의 냄새’라는 표현은 모더니즘 문학을 추구했던 이효석 문학의 일면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일제시대 대다수 서민들은 궁핍한 삶을 사는 데 반해 작품이 다소 귀족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왕후의 밥 걸인의 찬”으로 유명한 김소운의 ‘7년간의 날의 행복’도 인상적이었다. 형

편은 어렵지만 사랑을 잃지 않은 부부의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을 생각하게 했다.

19일과 20일 이틀간 한국수필가협회가 주최한 전국 심포지엄이 광주에서 열렸다. 한국수필가협회는 1971년 창립한 수필문단의 주춧돌 같은 단체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품격 높은 문학 수필의 진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생생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토론, 수필극 공연, 수필문학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무등산 일대 시가문화권 기행을 통해 남도 자연에 깃든 문학의 진수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국 수필가 대회가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도시, 광주의 저력을 전국의 문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문예이론가인 루카치는 수필에 대해 “좀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인간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자리 잡은 마음의 미세한 풍경을 그리 는 양식”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정마와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 여름,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필 한 편 정도는 꼭 읽기를 권한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에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